

부산불교신문

적자에서 출발... 자산 772억원

창립 14주년, 사상호 고문·류석영 이사장 추대



부산불교신문 임직원들. 앞줄 왼쪽이 사상호 고문, 오른쪽이 류석영 신임 이사장.

2월 16일 창립 14주년을 맞은 부산불교신문이 그 동안의 불심경영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불자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1992년 8월 개점한 부산불교신문은 2월 16일 제 14차 정기총회를 열고 1993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아 왔던 사상호(70·해남)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류석영(66·법문)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된 사상호 이사장은 부산불교신문을 부산시 소재 60여개의 신협 중 랭킹 2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비상근 이사장 12년에 이어 2002년부터 상근직 이사장으로 활동해온 사 이사장은 매일 새벽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며 '수행하는 부산불교신문'의 면모를 다져왔다.

'신심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 이사장의 경영 철학은 전직원이 매일 108배 참

뻘만 아니라 1997년 전국 우수조합 선정 표창, 2003년 공제 우수조합 중앙회장 표창 등 업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신협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사 이사장은 "수행하기 좋고, 봉사하기 좋은 불교신협이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 임직원, 조합원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신협이 가능했다"며 한사코 공로를 불자들에게 돌렸다.

금융결제원 가입과 함께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 보다 편리해진 서비스로 한 걸음 더 조합원에 다가가신 부산불교신문

**전직원 108배로 일과 시작
사 고문, 월급 전액 불서 보시
업계 인정 최고 신협 결실도
다양한 서비스로 1위 목표**

은 이제 류석영 이사장 시대를 맞아 부산 랭킹 1위를 목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류석영(법무사) 신임 이사장은 부산불교신문 창립 준비부터 참여해 초대이사를 지냈고, 그동안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부산불교신문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돼 왔던 인물로서 기대가 높다.

3월 취임식을 갖게 되는 류 이사장은 부산불교신문 사육 마련을 장기적인 과제로 꼽으며 의욕을 내비쳤다.

류석영 이사장은 "매일 108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공동체가 불교신협의 모체인 만큼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신협이 되도록 사상호 고문, 임직원과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겠다"며 스님과 불자들이 '1통장 갖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051)633-912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복지활동 공백 Zero

불국토 전국 최초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개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왔던 복지사의 결혼이나 출산, 잦은 이직, 질병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노인복지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해충)가 15년 동안의 복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공백 방지를 위해 '부산시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소장 박용하, 이하 인력지원센터)'를 부산시로부터 수탁해 개소하게 됐다. 부산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이다.

인력지원센터는 시설 종사자들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복지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를 염두에 둔 최초의 시설이다.

인력지원센터에서는 대체 사회복지사 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부산시내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력 파악에 나선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기간제 파견 사회복지사를 필요 시설에 투입해 업무의 공백을 없애주는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자 우수한 여성 인력 및 고학력 유망인력에 대한 고용창출도 이어지게 되는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박용하 소장은 "불국토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부산시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유효성이 매우 높고 단기간 내에 곧바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복지현장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력지원센터 개소의 의미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영도구노인복지관 22일 개관



사회복지법인 해원(이사장 원희)이 위탁 운영하게 된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은 2월 22일 복지관내 3층 강당에서 개관식 및 관장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부산불교사회복지가관협의회 회장 해충 스님, 박대석 영도구청장,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도구노인복지관 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며 편안한 내집처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고의 시설은 아니지만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미래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이대원)는 2월 20일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11회 장학금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을 비롯 일념장학회 이대원 이사장, 일념장학회 최금순 회장, 임대자현 보살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대원 이사장은 "비록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30여년을 이어온 어머니들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았으니 여러 학생들이 더욱 더 분발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몇 십 년 전 일념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던 인연이 있는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은 "아주 오래전 장학금을 받았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다"며 "나 살을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일념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운영회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학생을 비롯 대학생 4명, 고등학생 6명에게 총 5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동국대 불교아동학

과 법전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던 중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학금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느 분야에서든 몇 배로 오늘의 감사함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개인택시 보현회 쌀 전달

부산 개인택시 보현회(회장 김신환)는 2월 16일 법문사 대웅전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우이웃 돕기 쌀 전달식을 가졌다.

김신환 보현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올 한 해는 더욱 분발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보현회는 20kg 쌀 120포대를 동래구 14개동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 120가구에 전달했다.

7년 전 창립된 부산 개인택시 보현회는 현재 7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겨울 쌀 수확기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은아 기자

밀양불교대학 졸업식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은 2월 18일 밀양 용궁사에서 제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표창사 주지 청운 스님, 통도사 교무국장 보하 스님, 밀양시 이정식 교육장 등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2년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 불교교리과정 수강생 44명이 졸업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김재홍, 박재희 씨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이원호 씨는 본사주지스님상, 김금희씨는 밀양사업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학장 정무 스님은 "불법을 바르게 공부한 졸업생들이 밀양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깊이 있는 불교공부가 될 수 있도록 수행과 이론을 겸비하는 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월 9일 3기생 입학식을 갖게 되는 밀양 불교대학은 2004년 조계종이 선정한 우수불교대학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앞으로 금강경 경전반을 개설할 예정이다. (055)354-4464 천미희 기자

北 아이들은 어떤 그림 그릴까?

참여불교운동본부 남북학생 교류전 마련

북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까?

2004년부터 북한 어린이에게 신발 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던 (사)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해충)가 북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만나볼 수 있는 값진 전시회를 마련했다.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부산시청 제3 전시실에서 열리는 '통일 만들기 남북학생 교류전'에는 북한 예술의 요람이라 불리는

북한의 예술 영재들이 교육받은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의 학생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2006년 10월 참여불교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던 제1회 자비의 통일염원 사생대회 및 백일장 수상작과 정어 스님, 김길권 교수, 내원정사, 옥련선원 유치원 등 한국 어린이들의 작품과 미술학원 아이들의 작품까지 총 79점이 선보인다.

한편 참여불교운동본부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월 3회 권력의 신발을 북한에 지원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불경금책 반야심경(3.5×5cm 80,000원)을 무료 증정합니다.

金剛極樂往生염주

極樂往生の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원효대사로부터 전해되는 녹색의 금강극락염주는 강한 기의 북한산 금강석으로 신비와 영험으로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영가를 안정시키고 잡귀와 악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극락왕생하게 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입니다.

금剛(금강)이란 가장 강하다는 뜻으로 금剛의 강한 힘으로 번뇌를 끊고 잡귀와 악귀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極樂(극락)이란 (정토삼보경)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십만여 국도를 지나면 그곳에 極樂정토가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환희가 있고 근심걱정과 고통이 없으며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往生(왕생)이란 불교에서 사람이 입적 후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念珠(염주)란 부처님께 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45,000원

건강에도 최고 소원성취척척

北韓産 金강염주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金강염주

세계희귀의 金강염주
세계희귀의 북한산 금강석과 천연광물에서 추출한 음이온, 등을 이온 결합하여 1300°C 이상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기능성 金강염주는 불심의 노력으로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고 건강에도 최고인 金강염주는 스님께 보시로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 선물입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金강염주
금강의 강한 힘이 발생하는 金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021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金강염주입니다. 금강석이 생산되는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인이 하시어 대중 포교를 일으키신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25,000

대리점 서울: 이화불교 (02) 720-1700
대리점 대전: 심강원 (042) 256-3375

사용하시던 金강염주 염주 끈이 끊어진 염주를 무상 수리하여 드립니다. (대리점모집)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뚫듯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